영아기 부모공동양육을 통한 육아지원 정책을 위하여
-스웨덴의 육아휴가제도를 통한 공동양육 실현-

이 영 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전공 부교수)
한 유 미 (호서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이 진 숙 (전북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여성의 역할보다는 부모 공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스웨덴의 부모 공동양육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 스웨덴 보육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육아지원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웨덴 부모, 보육전문가, 회사직원을 대상으로 면접연구, 스웨덴 아버지와 우리나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비교하기 위해 질문지연구를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는 부모노릇 분담,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참여, 아버지의 양육책임감 척도이다.

연구결과 : 첫째,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양성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둘째, 스웨덴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적어도 2달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이 직업적 경력을 단절시키고 능률 저하를 가져오기 보다는, 부모됨의 경험이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가져오며, 이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 가치 부여가 육아휴직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넷째, 한국은 어머니위주의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웨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유아교육기관 참여가 한국 아버지에 비하여 보다 더 활발하고 자녀양육책임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공동양육은 여성으로 하여금 양육과 출산을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도를 높여 줌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문제와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사회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